

# 코로나19·고병원성 AI...전북지역 감염병 확산 비상

### 전주·익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군산 어린이집은 2.5단계로 정읍 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가금류 39만마리 살처분

전북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심상치 않다. 군산시와 익산시, 전주시 등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고, 정읍시에서는 올해 들어 국내 최초로 가금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전주-익산 오늘부터 2단계 격상= 29일 전북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주시와 익산시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에 전주에서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익산시도 같은 날 정현을 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일상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

되고 있는 데다, 수능 등을 고려한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다.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대중교통은 물론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는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예배 활동 시 인원을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앞서 지난 28일 8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발령한 군산시는 어린이집의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현을 익산시장이 대학로에서 코로나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고 판단해 2.5단계로 상향 적용, 어린이집 191개소를 휴원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등 가정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보육을 하기로 했다.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난 25일 어린이집 원생 2명과 유치원 원생 1명이 확진됐다.

◇정읍서 2년8개월만에 고병원성 AI 확진= 정읍

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 28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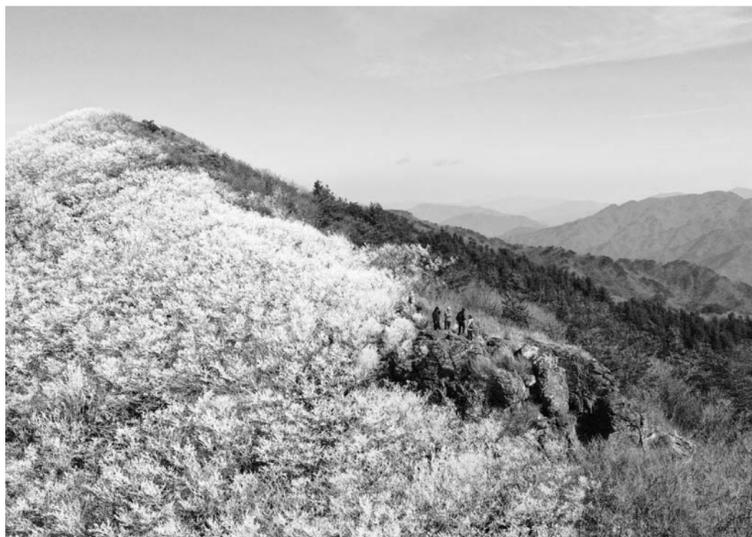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류 39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다. 오리농장과 반경 3km 이내 6농가의 닭 29만 2000마리, 오리 10만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반경 10km 내에는 60농가가 총 26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은 금지된다.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한다.

앞서 전북도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이 나온 육용오리 농장의 오리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기섭·유정영·박금석 기자 parkks@



상고대 활짝 핀 지리산 정령치 지난 28일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에 올 겨울 첫 상고대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남원시 제공>

## 남원시, 시내버스 정류장에 바람막이·온열의자 설치

남원시는 겨울철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해 주요 정류장에 바람막이와 온열 의자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온열 의자는 탄소 소재 열선을 이용해 열을 내는 의자로, 30~4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

지난해 36개 정류장에 설치했던 것을 올해는 80곳으로 늘렸다.

정류장에 비닐 천막을 둘러싸워 찬바람을 막아

주는 바람막이인 '온기 사랑방'도 11곳에 만들었다.

이들 시설은 내년 4월 말까지 운영된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겨울에도 추위에 떨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열 의자와 온기 사랑방을 대폭 확대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 새롭게 닦는다

순창군, 2022년까지 45억원 투입

순창읍~강천산 도보길 10.1km 조성

순창군이 강천산 진입도로의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을 조성한다.

29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2년까지 45억원을 투입해 순창읍부터 강천산까지 10.1km에 이르는 도보길을 조성한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도보길이 부족해 강천산 주차장으로만 진입하려

던 관광객들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강천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순창읍내 곳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강천산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도보길 곳곳에 불거리와 쉼터, 포토존 등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도보길은 성락길, 대모길, 용두길, 연화길, 예음 체험길 등 총 5가지 테마로, 갈마다 테크쉼터나 무인스킵터거치대, 풍경포토존, 음수대 등이 들어선다.

대모길은 전북도 기념물 제142호로 지정된 대모산성에서 이름을 가져왔으며 전망데크, 포토존조형물, 징검다리 등이 놓인다.

도보길 옆에는 단풍나무도 심어 강천산에 가지 전부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색단풍길을 조성한다.

대모길을 지나 이르는 용두길에는 디자인버스정차대와 풍경포토존 등이 들어선다. 가을철 황금들녘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만들 계획이다.

연화길에는 목교를 비롯해 쉼터, 디자인버스정차대가 들어서고 청단풍과 조팝나무, 화살나무 등을 주로 심어 꽃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길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미래식품산업 기반 구축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보고회

2023년까지 국비 등 70억 투입

고창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지역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사진>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49억원 등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차별화된 농업 생태계 기반 강



화 ▲식품산업 혁신 공유 플랫폼 구축 ▲식품산업 브랜드화 ▲식품산업 통합 포럼 운영, 액션그룹 경영 컨설팅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단체와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농업, 농촌, 농산물, 문화 관광, 청년,

일자리 등의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유기상 군수는 "농촌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강화해 소득 증가를 이뤄내는 등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